

호서대학교 대학평의회 2010학년도 제3차 회의

I. 회의 일시 : 2011년 1월 29일(목) 16:00

II. 회의 장소 : 아산캠퍼스 본관 2층 대학평의회실

III. 참석의원명단

교원 (함연진, 김동환, 방선권, 임계규)

직원 (김규웅, 정해천), 학생 (서호성), 외부 (이정팔)

IV. 안건사항

1. 2010학년도 호서대학교 추가경정예산 자문
2. 2011학년도 호서대학교 예산 자문
3. 대학 학칙 개정(안) 심의.
4. 기타 대학평의회에 관한 주요사항

V. 회의 :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함연진 의장 :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참석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사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대학평의원정수 11명 중 8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함연진 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3차 대학평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위해서 김동환 의원께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상정 처리

함연진 의장 : 오늘 안전은

- 1) 2010학년도 호서대학교 추가경정예산 자문
 - 2) 2011학년도 호서대학교 예산 자문
 - 3) 대학 학칙 개정안 심의
 - 4) 기타 대학평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 안전상정에 앞서 이전 회의록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2010-2차 대학평의회 회의 결과 보고하다

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 김동환 의원 선임

2) 기타 평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행정지원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평의회회실을 교무위원회실과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함

함연진 의장 : 제 1안건인 2010학년도 호서대학교 추가경정예산 자문을 위해 예산팀장이 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 (2010학년도 추가경정예산 주요사항을 설명하다)

함연진 의장 : 예산팀장이 설명한 2010학년도 호서대학교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나 자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팔 의원 : 수입이 예산대비 13.1% 증가된 것은 감사한 일이다.

함연진 의장 : 수입금액이 증가한 것은 대학에서 경영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외부에서 유입된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투자과 기타자산 수입 24억 감소, 투자과 기타자산 54억 증가와 관련해 설명해 주기 바란다.

예산팀장 : 투자과 기타자산 수입이 감소한 것은 기금인출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면서 기금인출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타자산지출이 증가한 것은 전년도 기타유동자산금액을 추경 시 계정 대체했기 때문이다.

김동환 의원 : 건설과 계정의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

예산팀장 : 생활관, 체육관, GLP 건설비 중 2010학년도에 배정된 금액이다. 체육관 증축예산은 2010학년도에 전액 배정 되었다.

김동환 의원: 생활관이 신축될 경우 대학 기숙사의 수용인원은 몇 명이고, 수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

예산팀장 : 기숙사 수용인원은 2200여명, 수용률은 18%정도로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처장 : 예전에 비해 기숙사 수용률이 개선되고 있고, 두 캠퍼스의 교통여건이 전철 개통 등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편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된다.

김규용 의원 : 천안캠퍼스의 경우 인근 경쟁대학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이로 인한 학생탈락이 발생한다. 교육환경 개선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기 바란다.

기획처장 :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복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

함연진 의장 : 기숙사 건물 뿐 아니라, 기숙사 내부에 contents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어, 중국어 village 등을 구축한다면 학생교육 및 만족도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획처장 : 교양교직학부에서 기숙사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김규용 의원 : 추정액이 예산규모에 비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기획처장 : 변동이 많았던 이유는 수입이 증가함에 따른 지출증가이다.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재학률이 향상됨으로 등록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는 국가의 재정지원사업 정책에 따른 부분이므로 예측이 어렵다.

임계규 의원 : 예산 변동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또한 대학의 노력으로 수입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방선권 의원 : 조교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는 예측 가능하지 않나?

예산팀장 : 행정부서 조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조교인건비로 배정된 예산의 일부가 계약직 인건비에 포함됨으로 변동된 예산이다.

방선권 의원 : 연구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예산팀장 : 연구비 예산에 기계기구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회계처리 방침이 바뀌면서 이 부분을 기계기구 매입비로 전환하므로 예산변동이 있었다.

서호성 의원 : 우리학교 기숙사는 밤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운영의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해천 의원 : 기숙사가 단순히 생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생활훈련 및 학습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과 규율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정팔 의원 : 지역 내 기독교 모임에 나가면 우리 학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학교 홍보물을 교회에도 보내주고, 지역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함연진 의장 : 우리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 지역교회가 학생 모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획처장 :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 대학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함연진 의장 : (201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지 묻고 없음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문을 마치다)
제 2안건인 2011학년도 호서대학교 예산자문을 위해 예산팀장이 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 (2011학년도 호서대학교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설명하다)

함연진 의장 : 예산팀장이 설명한 2011학년도 호서대학교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나 자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규 의원 : 교원인건비가 작년대비 3.5% 늘어났는데, 올해 교원인건비 인상률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나?

기획처장 : 3.5%가 늘어난 것은 자연승급분이 반영된 것이고, 등록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인건비도 동결된 것으로 책정 되었다.

임계규 의원 : 불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이 동결되면서 실질임금은 삭감되었다. 대학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

기획처장 : 작년에도 임금은 동결 했지만 재학을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분 중 일부를 특별 인센티브로 교직원에게 지급하였다. 올해도 대학 구성원의 노력으로 등록금 수입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고려할 예정이다.

함연진 의장 : 자연승급분이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연봉제 교원도 포함되었는가?

기획처장 : 신 연봉제에서는 직급승급분이 있기 때문에 직급승급을 통해 보전이 될 것이다.

김동환 의원 : 대학발전을 위해 2005년 이후에 온 젊은 교원의 사기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 학생탈락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학생지도가 중요한데, 2005년 이후에 들어온 젊은 교수님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많이 식었다. 본부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합리적인 연봉제 운영을 위해 애써주기 바란다.

주변 경쟁대학과 비교하여 천안캠퍼스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다. 최소한 천안캠퍼스 1호관과 2호관을 연결하는 공사는 추진해 주기 바란다.

김규웅 의원 :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이 결정된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

예산팀장 :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교직원 3명, 학생대표 2명, 외부전문가 1명, 동창 1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총 4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를 통해 동결로 결정되었다.

함연진 의장 : 주변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어떤지?

예산팀장 : (주변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설명하다)

함연진 의장 : 등록금 동결로 건축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2년 동안 임금이 동결되고, 교직원들의 업무부담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사기가 많이 하락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학과경쟁력지원사업과 관련해 현 평가지표가 단순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규모 학과에 유리하므로 소규모 단위학과, 대규모 단위학과로 나누어 평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김동환 의원 : 2011학년도부터 재정기여도 지표가 반영되어 학과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본다.

기획처장 : 2011년부터 지표가 열악하더라도 학과발전계획이 우수한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환 의원 : 이정팔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 내 교회 홍보를 위한 예산투자를 해주시기 바란다.

기획처장 :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함연진 의장 : 전입금, 기부금 비율이 매우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기획처장 : 등록금 외의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학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대외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대외협력팀을 대외협력부로 개편해서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등록금 외 수입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금, 산합협력단 전입금 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팔 의원 : 타대학의 경우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규웅 의원 : 등록금은 동결되었지만 구성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기획처장님이나 평의원회 의장님께서 임금 인상을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

함연진 의장 : 대학평의회 의견으로 건의하도록 하겠다. 기획처장님께도 건의를 부탁드린다.

함연진 의장 : (추가적인 질의사항 및 자문사항을 묻고 없으므로, 2011학년도 예산에 관한 자문을 마치다)

세 번째 안전인 대학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관리팀장께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관리팀장 : (대학 학칙 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설명하다)

함연진 의장 : 대학 학칙 개정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심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규 의원 : 전과와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

학사관리팀장 :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전과를 하고자 할 때 학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중도탈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다.

방선권 의원 : 학과 정원의 20% 범위 안에서 학점 제한 없이 전과가 가능하면 너무 많은 전과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함연진 의장 : 대학 내에서 이동이 제한되면 결국 탈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생각된다. 타대학 사례는 어떤가?

학사관리팀장 :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임계규 의원 : 공대 학과의 경우 학생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학과 수업내용이 어렵게 운영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수업내용이 쉬운 학과로 전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학과 교수님들의 관리를 가능하도록 최소한 전과 시 양과의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시켰으면 한다.

학사관리팀장 :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전과 시에는 양과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동환 의원 : 양과의 학과장 승인을 얻는 조건을 명문화하게 되면 이 규정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방선권 의원: 학점기준을 없애게 되면 전과하는 학생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학과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전공변경이 가능한 정원 비율을 입학정원의 10%로 조정하고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했으면 한다.

함연진 의장 :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과도하게 학과이동이 발생해서 학과 안정성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학칙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어떤가?

김동환 의원 : 동의한다. 관련부서에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문제가 많다면, 그때 가서 개정을 논의했으면 한다.

임계규 의원 : 학과장 회의를 통해 이 개정안에 대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김동환 의원 : 현재 개정안이 교무위원회, 학과장 회의, 사전공시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사항이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 다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방선권 의원 : 학칙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통과 시키고, 6장에 대해서는 전과 및 전공변경의 범위를 입학정원의 10%이내로 조정하는 안을 교무위원회에 회부시켰으면 한다.

김규웅 의원 : 동의합니다.

임계규 의원 : 재청합니다.

함연진 의장 : 학칙 6장의 전과 및 전공변경의 범위를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조정하는 안을 교무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안에 대해 가부를 묻고 전원 가하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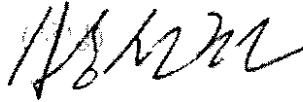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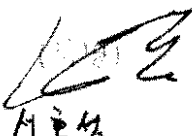
로 해당사항을 교무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하기로 의결함. 기타 다른 안건이 있는지 묻고, 없으므로 폐회 동의를 받음.

(김동환 의원의 동의와 이정팔 의원의 재청으로 가부를 묻고 일동 “가”함으로 폐회를 선언함)

위 의결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의원이 서명날인하며 김동환 의원, 정해천 의원, 이정팔 의원을 대표로 선임하여 간서명할 것을 위원장이 요청하다.

상기 기재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2011년 1월 29일

의 장	함 연 진		의 원	김 동 환	
의 원	방 선 권		의 원	임 계 규	
의 원	김 규 응		의 원	정 해 천	
의 원	서 호 성	 서호성	의 원	이 정 팔	